

## 역사와의 대화

May, 2016

## 역사와의 대화

5월의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전시들. EXHIBITIONS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세계 순회전인 <인간가족>이 영 못마땅했다.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인류보다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들을 주목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신화를 해체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니까.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사진전 <보이지 않는 가족>은,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롤랑 바르트의 저서 <카메라루시다>를 필두로 현대 사진의 역사를 돌아보는 프로젝트다. 5월 29일까지 서소문 본관 2~3층 및 일우 스페이스에서 로베르 두아노, 제프 쿤스, 다이앤 아버스, 듀안 마이클스 등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박창환은 개인전 <모던선비의 경성 나들이>에서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의 서울에 당도한 선비의 나들이를 상상했다. 익숙한 장면들은 새롭고 낯선 방식으로 재현되고, 관객은 그 앞에서 동시대적 일상의 이면을 엿보게 된다. 4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피아룩스 갤러리, 국제갤러리는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피에르 잔느레와 르코르뷔지에가 인도의 계획 도시인 찬디가르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완성한 디자인들을 소개한다. 오랜 협업자이자 사촌 시간이기도 했던 둘은 정부 주도로 기획된 이 국제 도시에서 건축적인 이상을 마음껏 펼쳤다. 지역적 특색과 현대적인 미학을 우아하게 결합시키고자 했던 야심만만한 도전의 기록이다. 사단 아피프의 <무엇을? 영원을.>은 수차례에 걸친 오버랩과 대화의 결과물이다. 그는 랭보의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의 기존 작업을 재해석하고, 동료 작가들에게 노랫말을 의뢰해 일종의 창의적인 주석처럼 곁들인다. 작품은 완결되거나 멈춰 서는 대신 꾸준히 확장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간다. 그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장면은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목격할 수 있다.

4. 피에르 잔느레와 르코르뷔지에의  
작업인 찬디가르 국회의사당 전경

(Photo : ©Ben Lepley, 이미지 제공 : 국제갤러리)

에디터 | 정준화